

소비자체감경기지수는 서울지역 체감경기 진단에 유용한 지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 증가, 중동 정세 변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은 2008년 3/4분기부터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or Consumer Survey Index)를 분기별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음.

소비자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의 하나로서 경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통계(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속보성이 우수하고, 서울지역의 체감경기 진단 및 전망을 하기에 유용한 지표임.

서울 1,000가구 표본으로 설정...연령·구별 비례에 맞춰 할당

소비자체감경기 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였으며 미혼가구는 제외함.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000가구이며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연령별·구별 비례에 맞게 표본비율을 할당함.

부가적으로 권역별 결과 산출을 위해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함.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여타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권역 구분을 사용함.

응답대상자는 가구주 및 가구주 부인으로 한정하여 조사함.

[표 1]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전체	55	210	295	282	167	1,009
도심권	6	9	13	13	9	50
서북권	6	25	33	30	20	114
서남권	16	66	87	86	50	305
동남권	10	43	66	63	34	216
동북권	17	67	96	90	54	324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가구부문을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 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CSI_k = \left(\frac{0 \sum_{ij \in n_1} w_{ij} n_{ij1} + 50 \sum_{ij \in n_2} w_{ij} n_{ij2} + 100 \sum_{ij \in n_3} w_{ij} n_{ij3} + 150 \sum_{ij \in n_4} w_{ij} n_{ij4} + 200 \sum_{ij \in n_5} w_{ij} n_{ij5}}{\sum_{ij} w_{ij}} \right)$$

CSI의 범위는 $0 \leq CSI \leq 200$ 이며 CSI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 분기보다 악화, 100이면 전 분기와 보합수준을 의미함.

1,000가구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로 분류함.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학력별, 응답자 성별, 가구주 직업별임.

서울연구원 소비자체감경기 조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매 분기 실시되며 크게 가계재정과 경제인식, 소비지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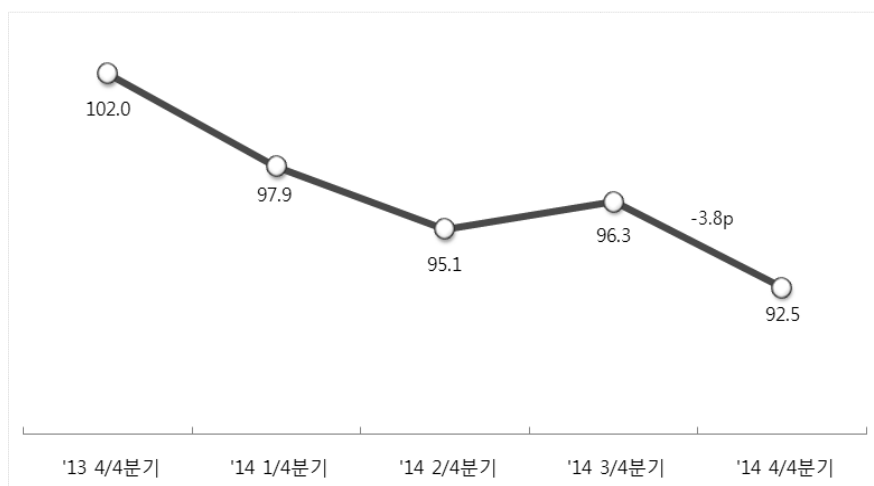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체계

주택구입태도지수는 4분기 96.1… 1년간 8.8P 뒷걸음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4/4분기에 92.5로 전년 동기(102.0) 대비 9.5p 하락함.

2014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9.7,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9.2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p, 12.3p 하락하여 기준치(100)에 크게 미달임.

상반기에 기준치(100) 이상의 값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6.1로 1년간 8.8p 하락하였으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점차 하향세를 띠며 전년 동기 대비 4.2p 하락한 94.9를 기록함.



[그림 2] 2014년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표 2]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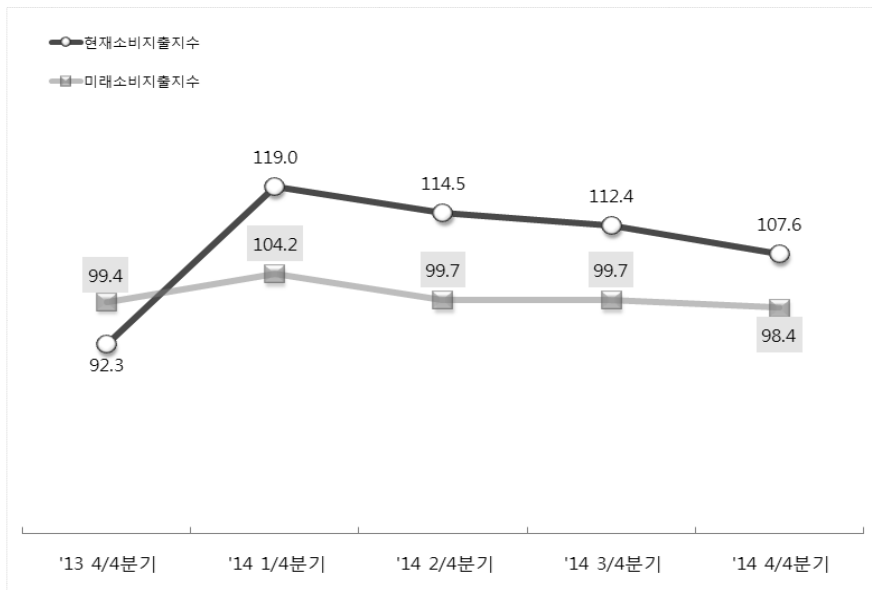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3년 4/4분기	102.0	89.4	101.8	71.5	96.8	99.1	104.9
2014년 1/4분기	97.9	84.6	99.7	63.8	95.0	95.7	101.5
2014년 2/4분기	95.1	81.8	97.5	59.5	90.7	94.5	99.6
2014년 3/4분기	96.3	82.9	97.5	60.7	91.9	95.8	99.9
2014년 4/4분기	92.5	79.7	91.9	59.2	81.7	94.9	96.1

물가예상지수는 4분기 128로 조사 이래 최저치 '체감물가도 저조'

1년 전에 비해 현재 지출 증가 여부를 묻는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14년 내내 기준치(100) 이상으로 1년 전에 비해 지출은 늘었으나 지출 수준은 꾸준히 감소함.

2014년 상반기 정체되어 있던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4년 4분기 급격히 하락한 93.5와 75.3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p, 15.9p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

「물가예상지수」는 2014년 4/4분기에 2008년 조사 이래 최저인 128.0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2p 하락하여 체감물가 역시 저조함.



[그림 3] 2014년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주: 2014년 1/4분기부터 '현재소비지출지수' 항목의 질문 문맥이 바뀌어 기존 지수 값과 차이가 있음.

[표 3]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3년 4/4분기	92.3	99.4	97.3	91.2	138.2
2014년 1/4분기	119.0	104.2	96.4	88.6	143.8
2014년 2/4분기	114.5	99.7	96.7	85.9	134.6
2014년 3/4분기	112.4	99.7	96.1	86.2	133.6
2014년 4/4분기	107.6	98.4	93.7	75.3	128.0